

투데이칼럼

ESG경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자

우리는 ESG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즉 '착한 기업(사업체)에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MZ세대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사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세 가지 비재무적 구조를 말하는데 이 용어는 2006년 유엔 책임투자 원칙(UN PRI)이 ESG를 고려한 투자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 원칙은 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재임 시절, 전 세계 기관투자가 및 학계, 시민 사회 출신 전문가 등이 모여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탄생시킨 기구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 투자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ESG 경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SG 경영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첫 번째 환경(Environmental)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LED 조명 사용,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 재활용, 폐

기물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분류 및 배출 철저히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 재료와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사회(Social)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평판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overnance)

는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방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현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관계자는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ESG 경영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한다.

어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를 분석하면 전통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

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디지털 생활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에서 폐용품 활용하여 장난감 제작 활동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하고, 지역의 사회복지관의 문화관람 및 온라인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노후화 및 불용 전자기기 재활용 지원 등 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은 지역 사회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ESG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크고 작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여 지역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ESG 경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제공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장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명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들은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김태호

온누리경영학교육인력양성협회 경영학박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크리스마스트리 주변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하이파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영국 세인트폴 대성당 합창단, 900년 만에 소녀 합류



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세인트폴 대성당 합창단'이 성탄절 미사를 위해 연습하고 있다. 원래 이곳의 합창단은 소년으로만 이뤄진 '소년 합창단'이었으나 올해 9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녀들도 합창단에 합류했다.

사설

대왕고래 시추선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동방 41km지점에서 시추를 하고 있다. 최대 시추 깊이는 1만 1430m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까지 시추공을 뚫은 후 암석 시료를 확보해 해당 좌표의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시료의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 이수검층(mud logging) 작업은 세계 1위 시추 기업인 슬럼버거가 맡았다.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 포항의 흥계 어민들은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탐사 시추로 손해를 본다며 해상 시위에 나섰다. 어민들은 포항 구룡포항에서 산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시추

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사업 미명 하에 어민들 죽이지 말라'고 했다.

흥계통발어선 등 모두 47척의 배를 동원해 시추선으로 향했다. 어민들은 탐사 시추 시기가 흥계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이고, 탐사 구역이 흥계 어장과 겹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지역 흥계잡이 배 32척 가운데 80% 정도가 시추 예정지와 가까운 곳에 어구를 놓고 흥계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흥계 어민들은 "시추 때 나는 진동·소음으로 반경 20km 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흥계잡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룡포연안흥계선추협회와 석유공사는 보상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17일 시추 장소인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해역에 도착해 20일부터 시추를 시작했다.

내년 1%대 저성장 전망

한국 경제가 갈수록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및 무역 지형에 대응해야 한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더십 공백으로 협상력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부진 등 충격과는 여전하다. 본격적인 연말 시즌임에도 이미 소비가 위축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될 거란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증했던 원·달러 환율 반등이 문제다. 고환율이 교착화되는 건 아닐까도 걱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증시 상황도 궁금하다.

정부는 증시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국내 주식시장 재평가와 관리를 위해 밸류업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은 총재가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촉각이 곤두선다.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궁금하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때문이다. 임의 경매가 급증했다는 건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